

월간
독
國

순국

2024
3

통권 제398호 www.soongook.org



광 복 회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SPECIAL THEME

3·1운동 105주년 특집

“3·1운동의 지역적 전개 양상과 특징”

순국 특별 초대석

황상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아름다운 사람들

이달의 순국선열 | 한용운 선사·황병길 선생

3월의 독립운동가 | 마가렛 데이비스·이사벨라 멘지스
데이지 호킹 선생

역사의 시선으로 구국 의병항쟁 열전③ - 허위 의병장

길 따라 얼 따라 서울, 독립운동과 역사의 현장을 가다⑦



우수콘텐츠집
2023

서울, 독립운동과
역사의 현장을 가다 ⑦

도봉구 일대의 근현대 역사 현장

필자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비롯한 한국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서울지역 학부모와 함께 2022년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탐방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의 동북 지역에 있는 도봉구 근현대 역사 현장 탐방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도봉구 일대는 일제 강점기 경기도 양주군에 속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럼에도 이곳은 1914년 9월 16일 완전 개통된 경원선의 창동역(창동역은 1911년 10월 15일부터 운영)이 있었던 관계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1930년대 이후 홍명희, 송진우, 정인보, 김병로 등 여러 애국지사들의 은거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봉구 탐방은 녹천역 1번 출구에 모여서 시작되어 정여학교까지 이어졌다.

1919년 3월 26·27·29일 창동리 일대
수백명 만세시위 안내표지판도 없어

이재유 체포지·전태일 집터 등 알려지지 않아 홍명희·송진우·정인보·김병로 등 은거지 역할 하기도

글 김학규(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녹천역 1번 출구 - 이재유 체포지

전설적인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이재유(李載裕, 1903~1944)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1934년 4월 14일 마침내 서대문경찰서를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독립운동을 계속 한 이야기는 <서대문밖 근현대 역사현장>《순국》2023년 10월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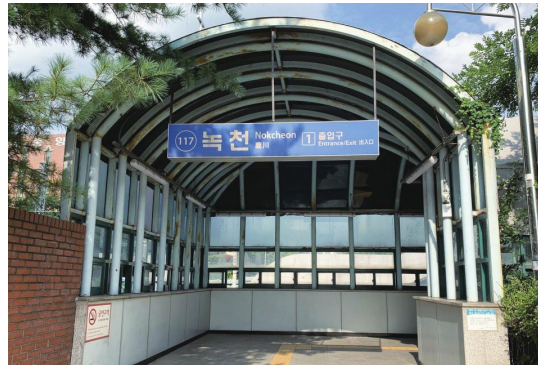
1935년에 터진 용산적색노조 사건의 체포망을 피해 동지 이관술(1902~1950)과 함께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 옥사 자리)로 숨어 들었던 이재유가 경성재건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던 중 다시 일경에 체포된 것은 학생운동 담당자 최호극과의 비밀 회동을 위해

창동역 인근 산중으로 갔던 1936년 12월 25일이었다. 애석하게도 이재유는 최호극이 이미 일제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재유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창동역 남방 800미터 지점에 있던 철도건널목(현 녹천역 근처)에서 일제에 체포되고 말았다.

6년형을 언도받은 이재유는 형기 만료 이후에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주보호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1944년 10월 26일 40세의 나이로 옥사하고 말았다. 이재유가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것은 뒤늦은 2006년이었다.



이재유를 체포하기 위해 동원된 변장 경관들이 이재유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



이재유가 철길 건널목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녹천역 1번 출구(이하 김학규 촬영)

창동리 이정표와 창동 일대의 3·1운동

창동역 인근에는 ‘창동리(倉洞里)’ 이정표가 세워져 있다. 조선 시대 양곡 창고가 있었던 창동(倉洞)의 유래를 간직한 이정표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창동리 일대에서는 3일(3월 26일과 27일, 29일)에 걸쳐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일제측 자료에는 26일에는 250명, 27일에는 490명, 29일에는 500명의 군중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중 일본 헌병에 의해 해산되면서 27일에는 7명, 29일에는 주모자를 비롯하여 92명의 주민이 체포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인근 도봉리에서도 창동리 만세운동이 시작된 3월 26일에 400명이 참여

하는 만세운동이 있었다.

그럼에도 디지털도봉문화대전은 안타깝게도 26일의 창동리와 도봉리의 만세운동만을 소개하고 있다.

창동역사문화공원에서 만나는 창동 3사자(獅子) 동상

창동역사문화공원은 도봉구가 2017년에 만든 공원이다. 이 공원에는 일제 강점기 후반 창동리에 은거했던 창동의 세 사자(獅子)로 불린 가인(街人) 김병로(1887~1964),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고하(古下) 송진우(1887~1945), 양명학의 대가 위당(爲堂) 정인보(1893~1950)를 기리는 창동 3사자 동상이 세워져 있다.

창동은 당시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면서도 동시에 경원선의 창동역이 있어 경성(京城, 현 서울)을 오가기에 힘들지 않은 곳이었다. 이에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시국이 불안해지자 어수선했던 경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둔지로서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창동역사문화공원에는 2017년에 세워진 도봉구 평화의 소녀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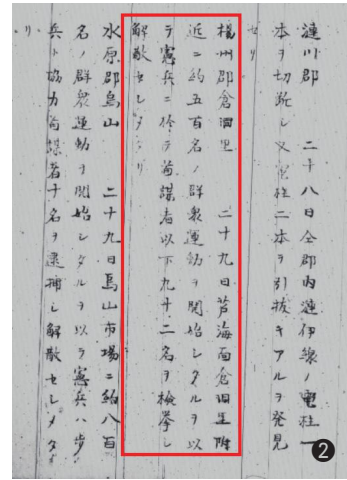
원조 인권변호사, 가인 김병로 옛 집터

김병로가 창동리로 이주한 것은 신간회(新幹會)가 해체되고 사상자건 변론에도 제약을 받게 된 1932년이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론한 인권변호



① 창동리 이정표

② 1919년 3월 29일 창동리일대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 당국의 보고 내용(‘독립운동에 관한 건’ 제31보,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



사로 명성을 얻은 김병로는 대한
민국 정부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
도 지낸 인물이다. 김병로 집터 표
지판은 ‘도봉로134길 14’에 있다.

1923년 김병로가 허헌·김용무·
김태영·이승우 등과 설립한 ‘형사
변호공동연구회’는 연구회를 표

방하면서 실제로는 항일 변호사
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법정
투쟁을 지원하는 독립운동 후원
단체였다. 김병로는 변호사로 활
동하면서 안창호·여운형 등에 대
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정의부·연통제·광복단·김상옥 등

의 사건, 3·1운동과 6·10만세운
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사건,
원산총파업 사건, 조선공산당 사
건과 간도공산당 사건 등의 변호
를 맡았다. 1927년부터는 민족협
동전선인 신간회에서 활동하였으
며, 1930년에는 중앙집행위원장
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김병로·송진우·정인보를 기리는 창동 3사자 동상

민족대표 48인, 고하 송진우 옛 집터

송진우가 창동리에 거주한 것
은 1938년부터였다. 송진우는 중
앙학교 교장 시절인 1919년에 현
상운, 최린, 최남선 등과 함께 중
앙학교 숙직실에서 3·1운동을 준
비한 인물로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이었다. 김성수와 가까웠던 그

는 감옥에서 나온 이후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다.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 정부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로부터 치안유지 책임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후 여운형에게 제안이 들어가면서 여운형 중심의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병준 교수는 《1945년 해방 직후사》(2023)에서 엔도가 1957년에 이를 부인한 인터뷰 발언 등을 근거로 엔도의 송진우 사전 접촉설을 부인하였다.

해방과 함께 한민당 결성을 주도하는 등 정국의 주요 인물 중 한명이었던 송진우는 1945년 12월 30일 한현우를 비롯한 극우파 행동대원 6명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해방정국에서 테러로 숨진 유력 정치인 중 북한에서는 현준혁(1906~1945, 평남인민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이었고, 남에서는 송진우가 처음이었다.

양명학의 대가, 위당 정인보 옛집터

1940년 정인보가 이주한 창동리 집은 간송(澗松) 전형필(1906~1962)의 창고에 딸린 초가였으나, 사랑방도 갖추 만큼 제



③ 고하송진우 옛집터 표지판 앞의 답사단 일행

④ 위당 정인보 옛집터 표지판

법 규모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후 정인보는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1908년 일찍이 상하이(上海)로 망명했던 정인보는 1912년 동계사(同濟社) 설립에 함께 하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양명학의 대가로 불리기도 하는 정인보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납북되었고, '반동'으로 분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다가 1950년 9월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진으로 피난하던 중 북한의 관리자들이 기력이 떨어진 정인보를 방치하는 바람에 낙오되어 그해 11월 사망했다고 전한다.

벽초 홍명희 옛 집터

소설 《林巨正(임격정)》의 저자



⑤ 벽초 홍명희 옛집터 답사 장면 ⑥ 전태일 열사 옛집터 표지판

로도 유명한 벽초(碧初) 홍명희(1888~1968)는 19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노해면 창동리(244-1)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다. 창5동주민센터 옆에 <홍명희 집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충북 괴산 출신의 홍명희는 1912년에 출국하여 상하이에서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1918년에 귀국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

어나자 충청북도 최초의 만세운동을 주도하여 1년여 간 투옥되기도 했다. 1929년 12월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원한 신간회 민주대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년여 기간 또 옥살이를 했다. 1928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에 《林巨正(임격정)》을 연재하여 일약 인기 작가로 부상하였다.

해방정국에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펼쳤던 홍명희는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한 후, 귀환하지 않고 북에 머물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한국 노동자의 상징, 전태일 열사 옛 집터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1948~1970)은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전태일이 살던 집(도봉구 해등로 195)은 현재 삼익세라믹아파트 112동 쪽이었는데, 전태일 집터 표지판은 아파트 앞쪽 창경초등학교 모퉁이에 있다. 전태일은 버스요금까지 털어 가난한 어린 여성노동자에게 풀빵을 사주는 바람에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이곳까지 걸어서 퇴근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전태일은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스물셋의 나이에 자신의 몸을 불살라 노동문제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시켜냈다. 어머니 이소선 여사(1929~2011)도 아들의 뜻을 이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평생을 바쳤다.

함석헌의 옛집에 세워진 함석헌 기념관

함석헌기념관은 도봉구민들의



⑦ 함석헌기념관 ⑧ 정의여고 교정에 세워진 윤기안 선생 상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함석헌(1901~1989)이 마지막 생을 살았던 도봉구 집을 리모델링하여 2015년에 개관하였다. 함석헌이 생활하던 지상 1층은 선생의 유품 전시, 발자취, 영상 상영 등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창고로 사용하셨던 지하 1층은 세미나실, 도서열람실, 게스트룸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석헌은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였다. 1919년 평양고보 시절 3·1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재야인사였다.

정의여고 안에 있는 윤기안 선생님

평북 박천 출신으로 정의여자학교 설립자 윤기안(尹基安, 1899~1990)은 선수예수학교 교사 시절 평남 대동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옥살이를 한 독립운동가다. 1948년 월남한 윤기안은 이후 동아일보 용산 제일보급소를 운영하며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모아 1970년 6월 11일 학교법인 삼산학원을 설립하여 도봉구 쌍문동에 1971년에는 정의여중, 1976년에는 정의여고를 설립했다. 정의여자학교에서는 윤기안이 서거한 이후인 1991년 10월 7일, 교정에 동상을 세워 설립자 윤기안의 독립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 도봉구 탐방은 아쉽지만, 재야 민주화운동가 계훈제 선생

의 옛집터, 민청련 의장을 지낸 김근태를 기리는 김근태기념도서관, 자유시인 김수영을 기리는 김수영문학관, 불교계 독립운동가 김법린 선생 묘 등은 둘러보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했다. **[순국]**



필자 김학규

서울 동작구에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아 지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현충원 역사탐방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근현대 역사탐방을 이끌고 있고, 『오마이뉴스』에 『동작 민주올레』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현충원 역사산책』,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 『남만과 전설의 동작구』, 『동작 민주올레』 등이 있다.